

10.4선언은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위대한 기치

강 명 구

위대한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북남관계를 명실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6.15북남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는 역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돛과 10.4선언발표 열돛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에 우리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자주통일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민족사적과제이다.

북남관계의 발전과 나라의 공고한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원칙과 사업, 방도들이 과학적으로 명시된 10.4선언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위대한 기치이다.

10.4선언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위대한 기치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공동의 원칙을 밝혀주기때문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민족의 자주적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리념이다.

10.4선언은 북과 남이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천명하였다.

민족자주는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그 어떤 경우에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민족단합의 원칙에서 이룩되어야 한다. 조국통일운동의 역사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자면 민족자주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한다는 고귀한 진리를 새겨주었다.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원칙인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온 겨레의 불타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제시하였다. 이 리념에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민족자주의 립장이 구현되어있으며 온 겨레를 민족단합으로 불러일으키는 민족공조, 련대련합의 지향이 힘있게 맥박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야말로 자주와 단결로 나라의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전민족적인 애국리념으로서 통일위업실현에서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불멸의 기치이다.

10.4선언은 우선 북과 남이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갈 의지를 다시금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오늘 우리 민족은 6.15공동선언에 기초한 10.4선언을 새 세기 조국통일의 행동강령으로 받아안고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그러나 조국통일운동의 이 거세찬 흐름과는 달리 남조선피괴도당은 통일문제를 자기 민족의 힘에 의거하지 않고 외세와의 공조를 통하여 해결해보려는 사대매국적인 반통일책동에 의연히 매달리고있다.

외세와 야합하여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10.4선언의 리행을 가로막아나서는 반통일세력들의 미국과의 《공조》를 철저히 짓부시자면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10.4선언은 또한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낼데 대하여 천명하였다.

우리에게 민족분열을 강요하고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배치되게 장장 반세기이상 조국통일을 반대하고 분열을 지속시켜온 기본장본인은 미국이다.

남조선을 타고앉아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끝장내며 진정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키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아가야 한다.

이처럼 10.4선언이 6.15북남공동선언이 밝힌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민족공동의 원칙을 천명한 바로 여기에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로, 우리 민족이 들고나아가야 할 위대한 기치로 되는 주되는 근거가 있다.

10.4선언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우리 민족이 들고나아가야 할 위대한 기치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방도들을 명시해주고있기때문이다.

6.15공동선언이 밝힌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맞게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자면 민족공동의 원칙이 제시되어야 할뿐아니라 그 구체적인 실천방도가 명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결시대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북남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발전시키고 조선반도에 평화보장체제를 세워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통일에 실제적인 담보를 마련해줄수 있다.

10.4선언에서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이 명시됨으로써 조국통일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었다.

10.4선언은 우선 북남관계를 6.15통일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실천적대책을 밝혀주었다.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이다.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부인하면 어차피 대결을 피할수 없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만 북과 남이 화합을 이룩하고 공리공영을 도모하면서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다.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자면 통일지향적인 방향에서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 청산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대결시대의 법률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이룩할수 없기때문이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증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불순한 반공화국모략소동과 적대행위들은 지체없이 중지되어야 한다. 남조선의 《보안법》을 비롯한 대결시대의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은 동족을 적대시하고 북남관계를 차단하며 조국통일운동을 탄압말살하는 도구이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방해되는 대결시대의 낡은 유물들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시킬수 있고 조국통일운동은 물론 협력과 교류도 활성화해나갈수 있다.

10.4선언에는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서로의 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려는 립장이 표명되어있다. 이것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남관계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하며 대화와 접촉을 발전시켜 대결시대의 낡은 잔재를 털어버리고 북남관계를 명실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전환시킬수 있는 현실적방도로 된다.

10.4선언은 또한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대책을 밝혀주었다.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는 민족의 생존조건이며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필수적전제이다.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자면 북과 남에 평화적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생존이 위협당하는 조건에서 통일과 번영에 대하여 논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조선반도에 평화적분위기가 조성되자면 북과 남이 서로 적대시할것이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요소들이 제거되어야 하며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끝장내고 항구적인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10.4선언은 북과 남이 군사적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을 명백히 밝히였다.

10.4선언에 의하여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방도적문제가 명시됨으로써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체계수립의 밝은 전망이 펼쳐지게 되였다.

동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겨레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립장은 일관하다.

남조선당국은 무턱대고 우리의 자위적행사들에 대해 결고들면서 정세를 격화시킬것이 아니라 북남간의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진지한 노력에 응해나서야 한다.

10.4선언은 또한 화해와 단합을 위한 협력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사항에 대해서도 밝혀주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여러가지 다방면적인 협력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조건이다. 협력사업을 강화해야 북남관계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실현하고 조선반도에서 평화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줄수 있다. 따라서 북과 남이 조국통일에 유리한 다방면적인 협력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민족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0.4선언은 북과 남이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활

성화하며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유리한 다방면적인 협력사업을 진행한다는데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민족적인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 있는 지름길을 환히 열어놓았다.

이와 같이 10.4선언에 의하여 오래동안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갈망해온 민족사적숙원을 실현할수 있는 원칙과 방도들이 명백히 제시된것은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여기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이 조국의 자주통일실현의 위대한 기치로 되는 다른 하나의 근거가 있다.

10.4선언이 조국의 자주통일실현에서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위대한 기치이라는 것은 조국통일운동에서 커다란 견인력과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데서 뚜렷이 증시되고있다.

리론은 실천에서 검증된다. 10.4선언의 위력은 그것이 통일운동실천에서 발휘되는 영향력과 견인력에 의하여 평가된다.

지금 해내외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의 기치를 높이 들고 10.4선언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어나가고있다.

범민련남측본부와 참여련대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선전활동과 기자회견, 간담회, 정책토론회들을 통해 남북선언은 《온 겨레의 통일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의 성과를 계승하고 리행수준을 한단계 발전시킨 선언》, 《남북관계발전의 획기적인 계기》, 《자주통일의 전진과 승리를 추동하는 위력한 보검》이라고 주장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 등 80여개의 청년학생단체들은 공동으로 《남북선언지지, 리행을 위한 남조선청년선언》을 발표하고 청년학생들이 10.4선언을 리행하여 자주통일,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앞장설것이라고 밝혔다. 《남조선진보련대》를 비롯한 진보적단체들은 결의문, 성명, 성토문들을 발표하여 전민중이 새로운 투쟁각오와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총진군에 떨쳐나설 의지를 표명하였다.

민주로총을 비롯한 노동운동단체, 녀성단체들도 《6.15공동선언실천, 남북선언리행!》의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이룩하고 통일운동의 적극화, 대중화를 위해 노력할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친미보수집권세력의 북침대결책동으로 하여 날로 좋게 발전하여오던 북남관계가 과거처럼 대결상태로 되어가고있다. 이런 조건에서도 남조선의 통일애국세력들은 남조선피괴당국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북남대결을 고취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책동을 폭로규탄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높이 들고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피괴도당의 민족반역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오늘 북남관계가 돌이킬수 없는 파국적위기에 처하고 조선반도정세가 정치군사적대결의 극한점에 이르게 된것은 전적으로 미제와 남조선피괴도당의 악랄한 반통일적책동에 기인된다. 남조선피괴도당은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책동에 편승하여 반통일정책을 내놓고 조선반도핵문제, 《인권》소동에 열을 올리면서 반공화국전쟁책동에 광분하고있다. 현실은 민족반역의 무리인 남조선피괴도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악화된 북남관계를 해결할수 없고 조선

반도의 정세가 완화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애국적민주세력들은 북남관계의 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해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온갖 민족적재난을 몰아오는 남조선괴뢰도당을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모두는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을 높이 받들고 10.4선언 발표 열흘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